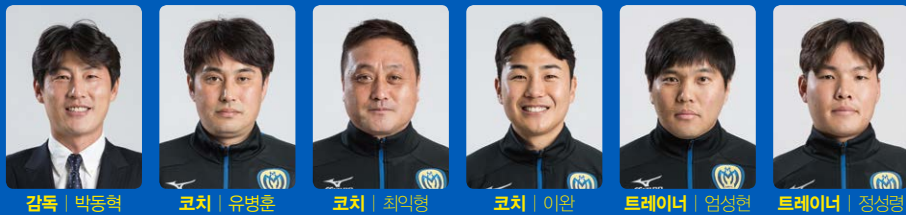


COACHING STAFF



GK



DF



MF



FW



NEXT HOME MATCH UP



아산 무궁화 FC

VS



성남 FC

K LEAGUE 2 | 15R

2018. 6. 6(수). 19:00 이순신종합운동장

MATCH DAY MAGAZINE | VOL. 07



아산 무궁화 FC

TODAY MATCH UP
K LEAGUE 2 | 13R

2018. 5. 28(월). 19:30 이순신종합운동장



부산 아이파크



풀백으로 변신한 ‘팔색조’ 김종국

시즌을 치르다 보면 팀에 위기가 찾아온다. 갑작스런 주전의 부상은 감독으로 하여금 고민을 빠뜨리는 주된 요소다. 아산도 그렇다. 2018시즌 주전 우측면 수비수로 나선 구대영이 부상을 당해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됐다. 박동혁 감독으로서는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아산의 오른쪽 터치라인은 구대영이 떠난 후에도 든든하다. 중앙 미드필더에서 풀백으로 보직 변경한 김종국의 활약상 덕분이다. 팀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김종국은 팀이 원한다면 어떠한 임무도 수행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나아가 부산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해 아산이 K리그2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MF 김종국 PROFILE

생년월일	1989. 1. 8.	데뷔	2011년 울산 현대	K리그 통산	98경기 2득점 1도움
포지션	MF	소속 팀	울산 현대(2011~2012년)~강원(2012년) ~울산 현대(2013년)~대전 시티즌 (2014~2015년)~수원FC(2016년)	아산 통산	19경기 1득점
신체 조건	179cm 71kg			2018시즌 기록	10경기
등번호	6				

Q. 본래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동료인 구대영의 부상 공백이라는 팀 사정 때문에 라이트백을 보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가?

A. “대학 무대에서 뭘 때 종종 이 자리를 보긴 했습니다. 물론 프로 무대에서는 아무래도 쉽지 않죠. 하지만 주변 동료들이 수시로 절 도와주는 덕에 큰 어려움 없이 뛰고 있습니다.”

Q. 풀백을 소화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나? 박동혁 감독이 풀백으로 뛰라는 지시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A. “감독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크게 두렵다가나 부담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과거에 이 자리를 약간 경험한 바 있는데, 팀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제 포지션은 어디가 되든 상관없다고 봐요.”

Q. 이명주 등 우수한 중앙 미드필더와 경쟁하다. 지금은 풀백들과 자리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 포지션에서 경험했던 경쟁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 듯한데

A. “우리는 상당히 공격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수비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상대 지역에서 세밀하고 신중한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대처하는 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봐요.”

Q. 중앙 미드필더로서 가진 장점이 많은 선수로 알고 있다. 그 장점을 풀백이라는 새로운 포지션에서 이식하고자 하는가?

A. “개인적으로 패스와 플레이메이킹에 자신이 있습니다. 크로스와 공수 전환 등 풀백이 가져야 할 본연의 임무도 잘해내야겠지만, 측면에서도 제 장점인 미드필더 플레이를 펼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Q. 대전 시티즌에서 이미 승격을 경험한 바 있다. 승격의 맛을 아는 팀 내 몇 안 되는 선수로서 그 기쁨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클 듯하다. 승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개인적으로 승격을 한번 경험해 봤기에 또 한 번 해내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승격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좀 더 골 결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팀 분위기와 조직적 플레이가 모두 좋긴 해도,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결정력을 살린다면 승격은 문제없을 거라 봅니다.”

Q. 다음 경기 상대는 ‘난적’인 부산이다. 부산은 빠른 발을 가진 왕어들이 많다. 그래서 풀백으로서 해야 할 몫이 많은 경기다. 부산전에 임하는 각오는?

A. “지난 부산 원정 경기에서 한번 졌습니다. 제 포지션과는 별개로 이번 홈 경기에서는 꼭 이기고 싶어요. 반드시 부산을 쓰러뜨려 K리그2 순위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박동혁 감독 “우리 팀에는 이명주·주세종·황인범 등 우수한 미드필더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선수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감독으로서 그 점이 미안했습니다. 경기에 내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김)종국이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어느 자리든 제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선수죠. 풀백에 세워보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하더라고요. 장기 부상 중인 (구)대영이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기용할 생각입니다.”



임창균(MF) “종국이는 원래부터 팀에서 살림꾼 구실을 충실히 하는 성실한 선수예요. 그런데 풀백에서도 저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원래 제 포지션이었던 선수처럼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선수는 어느 포지션에서나 자기 소임을 다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국이는 대단한 선수라고 봅니다. 부럽습니다.”



VS



이 경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역대 전적



골득실



KEY PLAYER



아산은 지난 12라운드 대전 시티즌전에서 외의 일격을 당하고 말았다. 2연승을 통해 끌어올린 분위기도 주춤해진 상황이다. 대전·부산 홈 2연전을 통해 성남 FC와 선두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대전전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다가올 13라운드는 대단히 중요하다. 상대는 난적이자, 아산을 상대로는 천적 기질을 보이고 있는 부산이다. 아산은 부산을 상대로 통산 전적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객관적 전력상 크게 밀린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힘을 쓰지 못했는데, 절박함을 안고 승부할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관건은 골 결정력이다. 아산은 지난 대전전에서 내용상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도 골을 넣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기에서 골잡이 소임을 맡고 있는 이재만이 해야 할 몫이 매우 크다. 날카로운 한 방으로 부산의 수비를 깨뜨려야 한다.

PLAYERS POSITION

4-4-2



이구동성(異口同聲). “변신한 김종국에 대한 평가는?”